

주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라

본 문 마태복음 16장 1-12절
 요한복음 6장 1-13절

『마태복음 16장 1-12절』

- 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
- 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
- 3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
- 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
- 5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
- 6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
- 7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
- 8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
- 9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
- 10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
- 11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
- 12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

요한복음 6장 1-13절

- 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
- 2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
- 3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

- 4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
- 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
- 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
- 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
- 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
- 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
-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
- 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
- 12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
- 13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』

〈주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라〉

본 문 마태복음 16장 1-12절 (사회자는 또박또박 봉독할 것)

참 고 요한복음 6장 1-13절

◎ 〈주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라.〉 - 말씀 시작하겠습니다.

〈말씀 시작〉

◎ 먼저, 〈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〉을 설명해 주겠습니다.

〈성경 말씀〉은 ‘그 당시에 일어난 일’로서

〈그 시대 사람들〉에게 말씀하며 깨닫게 해 주기도 하지만,

시대마다 상황은 달라도

<그러한 입장에 있는 모~든 사람들>을 깨닫게 해 줍니다.

◎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 ‘무엇’을 깨닫게 하실지,
귀를 기울여 잘~ 듣기 바랍니다.

◎ 마태복음 16장 1-12절 말씀 속의 상황은
<요한복음 6장 1-13절>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

그럼, 그 내용을 먼저 자세히 들어볼까요?

*** 여기서 한 템포 쉬었다가 다음 내용 전하기.

*** 내용이 잘 이해되도록 이야기하듯 잘 설명할 것.

*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

<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>입니다.

그때 큰~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, 이는

<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>을 보았기 때문입니다.

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고,

그때는 마침 ‘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’였습니다.

* 이때 예수님은 - 큰~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
제자 ‘빌립’에게 말씀하시기를,

“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무리에게 먹이겠느냐?” 하셨습니다.

물론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어떻게 행하실지,

<행할 주인>이니 알고 계셨습니다.

정말 떡을 사서 무리에게 먹이고자 한 말이 아니라,
빌립의 마음은 어떠한지, 그 마음을 떠 보려고 한 말이었습니다.

* 그런데 빌립은 ‘정말 먹을 것’ 으로 알고 계산했습니다.
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지요?

“사람들이 많아서, 각 사람에게 떡을 조금씩만 나눠 줘도
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.” 했습니다.

* 그렇습니다.

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줄 떡을 사기에는
이백 데나리온이나 부족했습니다.

* 이때 제자 ‘안드레’ 가 예수님께 여쭙었습니다.

“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,
〈보리 떡 다섯 개〉와 〈물고기 두 마리〉를 가지고 있습니다.

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
얼마나 돌아가겠습니까?”

* 이에 예수님께서 “모두 여기 와서 앉게 해라.” 하여
무리가 와서 앉으니, 그 수가 ‘5000명’ 쯤 됐습니다.

그리고 예수님은
〈아이가 가진 떡〉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무리에게 나눠 주셨고,
〈물고기〉도 모두 원대로 먹도록 나눠 주셨습니다.

모두 배가 불렀고, 예수님은

“남은 조각을 버리지 않도록, 바구니에 담아라.” 하셨습니다.

* 그랬더니, <보리 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>이
<열두 바구니>나 찼다고 했습니다.

이것이 성경에 ‘표적’으로 기록됐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* 이 일이 있는 후에,
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
<하늘로부터 오는 표적>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.

◎ 이 내용이 <마태복음 16장 1-12절>에 기록되어 있지요?
이 말씀이 <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말씀>입니다.

*** 여기서 한 템포 쉬었다가 다음 내용 전하기.
*** 내용이 잘 이해되도록 이야기하듯 잘 설명할 것.

*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
<하늘로부터 오는 표적>을 보여 달라고 하자,
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시기를

“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,
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나니,
너희가 <날씨>는 분별할 줄 알면서
<시대의 표적>은 분별할 수 없느냐.

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<표적>을 구하나,
<요나의 표적> 밖에는 보여 줄 것이 없느니라.” 하고,

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.

*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가면서
<떡>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걱정을 하니,
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
“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.” 하셨습니다.

이에 제자들은 서로 의논하여,
“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더니, 저리 말씀하신다.”
했습니다.

* 예수님은 <비유로 하신 말씀>을 풀어서
다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.

“믿음이 작은 자들아.
어찌하여 ‘떡’ 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의논하느냐.
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.

<떡 다섯 개>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긴 것이 몇 바구니이며,
<떡 일곱 개>로 4000명을 먹이고 남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
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.

내가 <떡>이 없다고 걱정했느냐. <먹는 떡> 이야기가 아니다.

<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>이 ‘썩는 누룩’ 같으니,

<그들의 교훈>을 조심하라는 말이니라.

너희는 <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>을 주의해라.”
하셨습니다.

<중요>

* 그제야 제자들은 <떡의 누룩>이 아니고,
<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>이 ‘썩는 누룩’ 같으니
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.

* 그리고 <떡 다섯 개>와 <물고기 두 마리>를 가지고
5000명을 먹였다는 것도
<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형식과 교훈>을 지적하며
<생명의 말씀>을 가지고 5000명에게 말씀하여
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

* 또 5000명을 먹이고도 ‘열두 바구니’가 남았다는 것은
예수님이 <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>을 지적하니,
<제자들>과 <말씀을 들은 무리들>도
<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을 깨닫게 됐다는 것>입니다.

*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니,
예수님은 제자들에게 ‘직접적인 말’로 하지 않고,
<비유>를 들어 말씀하며 깨닫게 하셨습니다.

그런데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두고 <비유>로 말씀하시니,
제자들은 <주가 지난 날 말한 것>을 듣고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,
<주가 지난 날 행한 것>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.

그럴 때마다 예수님은

“아직도 내가 말한 것을 깨닫지 못했느냐.” 하고 답답해하시며,
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보고 비유를 들어 말했는지,
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.

* 이렇게 <성경 말씀>을 자세히 읽어 보면,
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보여 주시고 말씀하셨는데
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듣자,
예수님은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.

이에 제자들이 ‘우리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구나.’ 깨닫고,
그제야 ‘주님의 뜻’ 과 하나 되어 속 시원히 행했습니다.

*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
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도,
시간이 지나니 점점 뼈가 틀어지듯
<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>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.

벌써 신약역사 2000년이 다 갔는데, 아직도 예수님이
<보리떡 다섯 개>와 <물고기 두 마리>로 5000명을 먹였다는데,
말귀를 못 알아듣고 ‘표적’ 으로 믿고 있습니다.

* 그 시대의 상황 상 예수님도 <직접 말하기 곤란한 것>은
<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는 것>을 깨닫고,
우리는 제대로 알고 믿고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!

<잠시 쉬었다가 : 중요>

◎ 이제 ‘깨달아야 될 핵심’을 말씀하고, 마치겠습니다.

* 이 시대도 주님은 - 오늘 성경 본문 말씀같이 행하십니다.

주님은 <육적으로, 자기 주관으로 생각하는 자들>을 보시고,
그들의 말을 떠보고 시험하십니다.

<자기 주관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자들>을 보면
절대 사실이 아니어도 정말 모르고 주장하니,
단번에 꺾어서 말하지 않고 그 말을 들어 주듯 하면서
그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하면 어떠냐고 말해 주기도 합니다.

그런데 주의 심정을 모르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는
주가 말했으니 주도 우리와 생각이 같다면서,
<누룩 같은 말>을 하고 <누룩 같은 일>을 행합니다.

일례로 <진짜 가라지>를 잡으라고 했더니,
<주 앞에 가장 충성자>를 ‘가라지’로 몰아서
그 사람 잡는 일을 행합니다.

결국 그들의 말을 떠보고 그 마음을 시험해 보니,
그들이 ‘주님의 생각’과는 다르게
<자기 좋은 대로 말하고 행한다는 것>을 알게 되었습니다.

* <이치>에 맞게 행해야 됩니다.

하나님도 성령님도 <육적인 자>에게는 ‘육적’으로 대답하시고,
<영적인 자>에게는 ‘영적’으로 대답하십니다.

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<각 사람의 행위>대로 대하시며,
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시험해 보십니다.

* <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말씀>을 제대로 알아듣고,
<근본의 심정>을 깨닫고 행해야 됩니다.

<앞에 적이 있거나 말하기 곤란할 때>는
<실상>은 그렇지 않은데 <비유>를 들어 다르게 표현합니다.

* 이 시대에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,
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‘소경들’ 이 많습니다.

어느 때는 “물 떠 와.” 하는데
그때 상황 상 그렇게 말한 것이고,
실상은 ‘먹을 것 좀 가져 오라는 말’ 을 한 것입니다.

그런데 못 알아듣고, 물만 떠옵니다.

또 어느 때는 주가 ‘생명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일’ 을 하는데,
제자들은 ‘왜 이렇게 하지?’ 하며
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.

어느 때는 ‘근본의 마음’ 이 그것이 아닌데,
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리 행하기도 합니다.

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행하겠습니까?
<주의 마음과 심정을 가진 자>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 : 중요>

*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-12절 말씀을 전해 주면서,
〈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〉은 ‘썩는 누룩’ 과 같으니
〈그들이 가르치고 주장하는 말〉을
절대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.

또한 예수님께서서

〈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〉이 아니고
〈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썩는 누룩과 같은 교훈〉을 지적하시며
〈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신 주님의 설교〉임을 깨닫듯이,
오늘 말씀도 그러함을 깨닫고 행하라고 했습니다.

* 오늘, 어떤 사람들 때문에
이같이 설교하는지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.

섭리사에서

〈그릇된 것을 맞다고 주장하며 말하는 사람들〉 들으라고,
그들을 앞에 놓고 말하듯 말합니다.

또한 〈누룩 같은 말과 행실을 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〉에게
말합니다.

그런데 〈주의 말씀〉을 들어도
이 말씀을 ‘자기 식’ 으로 해석하며,
〈자기〉를 두고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
〈자기가 싫어하며 공격하는 그 사람〉을 두고 말한다고 합니다.

그러면서 주가 〈충성자〉를 보고 잘했다고 말하면,
〈그 충성자〉를 보고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

<자기>를 보고 말한다고 합니다.

* 이 시대의 말씀들은 <직설>로 못 해서 <비유>로 돌려 말하니,
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
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.

또한 진정 기도도 해야 됩니다.

* 그리고 왜 교역자들도 말씀을 외치게 하는지도 깨달아야 됩니다.

<주>는 ‘머리’이며, <따르는 자들>은 ‘지체’입니다.
<뇌>가 지시한 것을 <지체>는 행해야 됩니다.

<지체들>이 행해야 다양하게 행하고,
<지체>가 발달될수록 <뇌>도 더 발달됩니다.

또한 교역자들도 외쳐야
새로운 생명들을 다양하게 주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.

교역자들도 외쳐야, 교회가 더 힘 있게 됩니다.

<이후 역사>를 위해서도,
어서 ‘설교 잘하는 자들’을 양성해야 됩니다.

* 교역자들과 지도자들이 외치고 행해야, 모두 힘을 받습니다.

그동안 가르쳐 주었으니,
배운 대로 담대하게 자신 있게 외치기 바랍니다.

단, <주의 말귀>를 잘 알아듣고서 외치고 가르쳐야 됩니다.

힘 있게 외치되,

강약을 조절하며 노래하듯 설교 내용의 곡조대로 외쳐야 됩니다.

강조만 하지 말고 청중을 이해시키면서 외치고,

청중이 이해하면 못 박듯이 힘 있게 외쳐 주면 됩니다.

* 교역자들과 지도자들뿐 아니라

<섬리사 전체 모두>가 ‘주의 지체들’이니,

부지런히 뛰고 달리면서 ‘증거’ 해 주기 바랍니다.

<주를 증거하는 말>은

<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역사>를 이룹니다.

◎ <주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라.> 말씀 마쳤습니다.

◎ 주님의 말씀으로 평강을 빕니다.